

두개피 관리 의식도 조사

오강수* · 지정훈

초당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 동강대학 피부미용과

The Consciousness Survey of Scalp Hair Treatment

Gang-Su Oh* · Jeong-Hun Ji

Dept. of Beauty Coordination, Chodang University* · Dept. of Cosmetology, Dongkang College
(2006. 6. 19. 접수)

Abstract

Hair is the part of body which expresses man into more manlike. When we create some artworks, we need the most suitable material for the artworks. Similarity, the healthy scalp hair condition and treatment are required to keep our hair clean and healthy. And the improper condition of scalp hair prohibits our hair from normal growing, proceeds the alopecia (loss of hair) and double our physical and mental stresses. The necessity of health treatment of scalp hair which was damaged by frequent permanent hair wave and hair coloring is on the rise. This study will present how to control and treat the scalp hair and will check how we feel about the necessity of scalp hair treatment. This study finally shows that people think their scalp hair conditions are not normal and chemically treated hair in spite of their natural hair. However, most people think that the scalp hair treatment is very useful to their hair and this result enables us to predict the future market of the scalp hair treatment business will be growing day by day. We need to study further not only scalp hair treatment but also prevention stage in order to keep the healthy hair and will check how we feel about the necessity of scalp hair treatment.

Key words: Scalp hair(두개피), Alopecia(탈모), Hair treatment(모발관리)

I. 서 론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경제적 부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의 전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간과 컴퓨터의 구체화된 정보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인간들의 일상적 생활패턴은 이전시대에 구가 하지 못했던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를

창출해 냈지만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정신적 등의 다양한 원인에 관계하며 인간의 면역체계, 호르몬 분비 등, 조직의 메카니즘을 변화시키는데 대부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 없이 자극에 노출되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한다.

인간은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를 이루어 냈지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부적절한 환경은 인간의 신체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환경과 인간과의 부조화는 스트레스 상황을 발생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탈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 육모(育毛)

*Corresponding author: Gang-Su Oh
E-mail: ogs44@hanmail.net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개피란 두개골(skull)을 둘러싸고 있는 두개피부(scalp) 및 모발(hair), 즉 두피 및 모발을 뜻하고 두개피부는 머리카락이 있는 피부, 두피는 머리카락이 없는 독두(禿頭, Baldness)의 상태를 말하며, 두개피 내 모발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두개피(頭蓋皮, scalp hair)에 관한 연구는 효과적인 피부관리로서 뿐만 아니라 미용 서비스, 모발 및 두개피부 손질 방법 등에 대한 바탕이 된다.

모발은 성적 사회적 매력을 표현하는 신체의 한 부분¹⁾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장식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헤어스타일도 모발의 장식적 기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모발의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모발은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소재가 필요하듯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발이 자라는 두개피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두개피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두개피의 부적절한 환경은 모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탈모로 이어지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배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발섬유는 포유동물의 외피를 형성하는 주요성분이며, 외피는 동물과 환경사이의 노출의 결과에 대한 물리적 장애물을 형성하고, 거친 환경에 대한 적응은 진화와 함께 또한 안정성을 요구하는 관리(treatment)를 필요로 한다. 모발의 아름다움을 유지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두개피의 청결이 필수적이며 두개피의 청결은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두개피를 자극하면 두개골을 둘러싸고 있는 모발과 두개피부를 유연하게 하여 모발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준다. 두개피 내 모발과 두개피부는 의존적인 관계로서 두개피부의 상태가 나쁠수록 모발의 손상은 높다.

건강한 아름다움은 색채화장 이전에 건강한 피부를 가져야 하듯이 아름다운 스타일을 위해서는 건강한 모발을, 그리고 그 모발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두개피부를 관리²⁾해야 한다. 두개피 관리는 두개피부를 자극해 주면 좋는데 두개피부의 자극은 혈행(血行)이 활발해지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며 모발을 성장시키고 건강을 유지³⁾시킨다. 두개피는 나이 및 환경, 섭취하는 에너지원 및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처럼 외모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모발에 느낌

을 표현하는 미용적 시술에 의해 더 많은 손상을 받는다. 따라서 잦아진 퍼머(permanent hair wave)와 염색(Hair coloring) 등의 화학적 시술로 인한 손상된 모발을 개선시키고, 생태계와의 부조화로 인해 약해진 두개피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하여 그 근원을 이루고 있는 고객의 두개피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고, 미용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는 두개피 관리 시장을 위하여 두개피 관리가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털은 포유동물의 외피(integument)를 감싸고 있으며 동물과 환경사이의 물리적 장애물을 형성한다. 털은 거친 환경의 노출에 대하여 진화하였으며 부수적인 트리트먼트를 요구한다. 털은 굵기에 따라 울(Wool), 헤어(Hair), 캠프헤어(Kamp hair)⁴⁾로 구분되며 울 섬유를 제외한 동물에 의해 얻는 털인 모섬유(毛纖維)를 헤어 섬유라 한다. 헤어나 캠프 헤어는 모두 모수가 있는 섬유(Medullated fiber)이다.

인체 전신에는 130~140만개의 솜털로서 연모(Lanugo hair)를 가지고 있으며 두개피 내 10~11만개 정도의 섬모인 두개피 모발(Scalp hair)이 헤어 섬유를 대변한다.

인간 두개피 모발(Scalp hair, Capillus)은 보호와 미용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현상에 필수 불가결할 요소는 아니지만 여성을 여성답게 표현해 주고 남성은 남성다움을 대변하는 요소이다. 같은 사람이라도 머리모양(Hair do)과 모발에서의 색에 의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두발 모양을 조정하여(Make up) 사회, 문화적 지위를 표현 한다⁵⁾. 이렇듯 모발은 생활과 매우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개피는 태생 6~7주(55~57일)에 배아로서 한 층의 세포가 배열된 후 기저층의 세포들이 분열하여 3~5층의 중간층이 배아층과 태아 표피 사이에 형성되는데 이 때 모아(hair bud)가 발생한다. 모아의 발생에서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는 두개피의 외피에서 유래된다. 모아층은 태생 12~14주에 3~4층으로 분열됨으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개피는 2~3층으로 되어 안쪽에서 배아층, 중간층 그리고 주피로 구성되어진다. 배아층인 기저층은 원주상의 세포 집합체인 기저막대를 이루므로 모낭의 기원이 된다.

모낭발생과정의 형태를 모아라 하며 전모아가

(Primary hair germ stage) → 모아기(Hair germ stage) → 모항기(Hair peg stage) → 모구성 모항기(Bulbous hair peg stage) 과정을 통해 모낭이 형성 된다⁶⁾. 모발의 형성은 눈썹 부분이 가장 빠르며 이보다 약간 늦은 태생 9~12주에 두개피부와 그 밖의 부위에서 모아가 발생한다.

두개피 진피층은 섬유모세포, 조직구, 비만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림프구, 형질세포를 포함하며 유두진피(papillary layer)와 망상진피(reticular layer)로 구성된다⁷⁾. 진피의 윗층인 유두진피는 영양을 공급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과 피부팽창 및 탄력을 좌우하며 촉각과 통각을 감지한다. 그물모양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진 망상진피는 피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지 않게 하며 압박, 냉각, 온각을 느낀다. 두개피 가장 아래 조직인 피하조직(hypodermis)은 중배엽 발생층으로 진피와 근육, 뼈 사이에 위치하며 영양분을 저장하고 바이타민 D를 합성하는 지방을 함유한다.

모발의 성장은 대체적으로 일년에 14~16 cm 자라며 신체 전 부위에는 약 5천만개의 모낭이 경모(Terminal hair, TH)나 연모(Vellus hair, VH)를 포함하고 있다. 두피에는 1 cm²당 대략 460개 정도의 모낭수로서 하나의 모낭에는 하나의 피지선이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묶음의 단위인 모낭지선(Pilosebaceous, PSU)은 하나 이상의 섬유질로 구성 된다⁸⁾. 이 중 정상 두개피부에서 경모는 1 cm²당 약 175~300개 정도이다. 건강한 두개피 내에서 경모는 80~90%의 모낭이 성장기 단계이며 1~2%는 퇴화기, 10~20%는 휴지기 단계에 있다. 남성형 독두(Alopecia hereditary)와 모발이 손실되는(Hair loss) 기간은 성장기에서 휴지기으로의 진행이 더욱 가속화되며 생리적인 탈모 역시 계절적인 요인으로서 8월이나 9월에 가장 많은 모발의 손실을 가져온다.

모발은 같은 사람이라도 성장하는 부위에 따라 굵기가 다르며 모질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마다 섭취하는 음식물 또는 유전인자, 환경, 미용처치에 따라 굵기와 모질이 변화한다. 이는 길게 늘어져 있는 모간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모발손상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발의 표면인 모표피는 비늘상의 단단한 케라틴 단백질이 5~15겹으로 모간 쪽으로 중첩되어 있으며⁹⁾ 외부 자극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빈번하게 행하는 샴푸, 타올 드라이, 빗질(Combing), 모발끼리의 마찰 등에 상당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미용현장에서는 시진과 축진 등의 방법을 통한 원인 분석과 모발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06년 6월 25일부터 7월 30일 까지 이다.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400명, 같은 지역 미용관련학과 재학생

<표 1> 일반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14	31.1
	여	253	68.9
연 령	25~29세	98	26.7
	30~34세	71	19.3
	35~39세	71	19.3
	40~44세	67	18.3
	45세 이상	60	16.3
학 력	중졸 이하	15	4.1
	고졸	177	48.2
	전문대졸	55	15.0
	대졸	111	30.2
직 업	대학원 이상	9	2.5
	전문직	85	23.2
	사무직	67	18.3
	서비스직	157	42.8
	생산직	16	4.4
	농업 및 어업	15	4.1
소 득 만족도	기타	27	7.4
	매우 만족	5	1.4
	만족	71	19.3
	보통	209	56.9
	불만족	66	18.0
	매우 불만족	16	4.4
근무여건 만족도	매우 만족	9	2.5
	만족	87	23.7
	보통	209	56.9
	불만족	48	13.1
	매우 불만족	14	3.8
	계	367	100.0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한 일반인 367부, 미용관련학과 학생 86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두개피 관리에 관한 의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일반인에 해당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367명 중 성별로는 여자가 68.9%로, 남자 31.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34세와 35~39세가 각각 19.3%, 40~44세 18.3%, 45세 이상 16.3%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 30.2%, 전문대졸 15.0%, 중졸 이하 4.1%, 대학원 이상 2.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23.2%, 사무직 18.3%, 기타 7.4%, 생산직 4.4%, 농임업 및 어업 4.1% 순으로 차지하였다. 소득 만족도별로는 소득에 불만족하는 성인이 22.4%로 만족하는 성인 20.7%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여건 만족도별로는 근무여건에 만족하는 성인이 26.2%로 불만족하는 성인 16.9%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56.9%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2>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33	15.4
	여	731	84.6
학 년	1학년	544	63.0
	2학년	320	37.0
연 령	17~19세	49	5.7
	20~22세	705	81.6
	23~30세	96	11.1
	31~40세	10	1.2
	41세 이상	4	0.5
계		864	100.0

또한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864명 중 성별로는 여학생이 84.6%로, 남학생 15.4%보다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63.0%로, 2학년 37.0%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22세가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3~30세 11.1%, 17~19세 5.7%, 31~40세 1.2%, 41세 이상 0.5%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및 내용

이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선행 논문¹⁰⁾으로 발표되어 있는 항목을 참고하여 논문의 내용에 맞추어 임의로 재구성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두개피 상태에 관한 문항과 두개피 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인과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개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두개피의 상태

1) 두개피 내 모발상태

일반인과 학생들의 모발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와 같이 염색 및 탈색모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퍼머먼트모 33.8%, 자연모 24.0%, 매니큐어

<표 3> 모발 상태

구 분	자연모	퍼머먼트모	염색 및 탈색모	매니큐어 및 코팅모	계	χ^2 (df)	p
일반인	147 (40.1)	89 (24.3)	99 (27.0)	32 (8.7)	367 (29.8)	78.41*** (3)	0.000
학생	148 (17.1)	327 (37.8)	320 (37.0)	69 (8.0)	864 (70.2)		
계	295 (24.0)	416 (33.8)	419 (34.0)	101 (8.2)	1231 (100.0)		

***p<.001

어 및 코팅모 8.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인은 40.1%로 자연모가 가장 많은 반면에 학생은 37.8%로 퍼머넌트모가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8.41, p<.001$). 따라서 일반인이 학생보다 자연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두개피부 상태

일반인과 학생들의 두개피부 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과 같이 두개피 타입이 정상 두개피부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성 두개피부 27.5%, 지성 두개피부 18.7%, 중성 두개피부 16.7%, 민감성 두개피부 5.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인이 33.0%로 학생 25.1%보다 두개피 타입이 건성 두개피부가 많았고, 학생은 34.8%로 일반인 22.9%보다 정상 두개피부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6.63, p<.001$). 따라서 일반인이 학생보다 두개피 타입이 건성 두개피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 두개피 증상

일반인과 학생들의 두개피 증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과 같이 두개피에 특별증상이 없는 경우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려움과 비듬

25.6%, 민감성 15.1%, 탈모 6.6%, 염증 5.6%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인이 30.0%로 학생 23.7%보다 두개피 증상으로 가려움과 비듬이 많았고, 학생은 16.7%로 일반인 11.4%보다 민감성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4.70, p<.001$). 따라서 일반인이 학생보다 두개피 증상으로 가려움과 비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에 대해 일반인과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이 염색 및 탈색이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퍼머넌트 헤어 웨이브 11.2%, 헤어 블루우 드라이 스타일링 5.4%, 헤어 코팅 및 매니큐어 2.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인이 83.7%로 학생 67.4%보다 염색 및 탈색이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라고 인식하였고, 학생은 24.1%로 일반인 11.2%보다 퍼머넌트 헤어 웨이브가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라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5.15, p<.001$). 따라서 일반인이 학생보다 염색 및 탈색이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두개피부 상태

구분	정상 두개피부	건성 두개피부	중성 두개피부	지성 두개피부	민감성 두개피부	계	χ^2 (df)	p
일반인	84 (22.9)	121 (33.0)	79 (21.5)	60 (16.3)	23 (6.3)	367 (29.8)	26.63*** (4)	0.000
학생	301 (34.8)	217 (25.1)	126 (14.6)	170 (19.7)	50 (5.8)	864 (70.2)		
계	385 (31.3)	338 (27.5)	205 (16.7)	230 (18.7)	73 (5.9)	1231 (100.0)		

***p<.001

<표 5> 두피증상

구분	탈모	염증	가려움과 비듬	민감성	특별증상 없음	계	χ^2 (df)	p
일반인	28 (7.6)	6 (1.6)	110 (30.0)	42 (11.4)	181 (49.3)	367 (29.8)	24.70*** (4)	0.000
학생	53 (6.1)	63 (7.3)	205 (23.7)	144 (16.7)	399 (46.2)	864 (70.2)		
계	81 (6.6)	69 (5.6)	315 (25.6)	186 (15.1)	580 (47.1)	1231 (100.0)		

*** p<.001

<표 6>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

구분	염색 및 탈색	퍼머넌트 헤어 웨이브	헤어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링	헤어코팅 및 매니큐어	계	χ^2 (df)	p
일반인	307 (83.7)	41 (11.2)	15 (4.1)	4 (1.1)	367 (29.8)	35.15*** (3)	0.000
학생	582 (67.4)	208 (24.1)	51 (5.9)	23 (2.7)	864 (70.2)		
계	889 (72.2)	249 (20.2)	66 (5.4)	27 (2.2)	1231 (100.0)		

*** p<.001

<표 7> 두개피 관리 경험

구분	없다	있다	계	χ^2 (df)	p
일반인	287 (78.2)	80 (21.8)	367 (29.8)	0.12 (1)	0.733
학생	668 (77.3)	196 (22.7)	864 (70.2)		
계	955 (77.6)	276 (22.4)	1231 (100.0)		

22.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인과 학생 모두 각각 78.2%, 77.3%로 별다른 차이 없이 두개피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인과 학생 모두 대부분이 두개피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두개피 관리

1) 두개피 관리 경험

일반인과 학생들이 두개피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와 같이 두개피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7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두개피 관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는

2) 두개피 관리 받기를 원하는 장소

일반인과 학생들이 두개피 관리 받기를 원하는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와 같이 두개피 관리를 두피관리센터에서 받길 원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30.5%, 병원 8.2%, 피부관리실 8.1%,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일반인은 61.9%로 두개피 관리를 미용실에 받기를 가장 원하는 반면에 학생은 61.5%로 두피관리센터에서 받길 가장 원하였으며, 통계적으로

<표 8> 두개피 관리 받기를 원하는 장소

구분	미용실	피부 관리실	두피관리센터	병원	기타	계	χ^2 (df)	p
일반인	227 (61.9)	22 (6.0)	84 (22.9)	13 (3.5)	21 (5.7)	367 (29.8)	272.44*** (4)	0.000
학생	148 (17.1)	78 (9.0)	531 (61.5)	88 (10.2)	19 (2.2)	864 (70.2)		
계	375 (30.5)	100 (8.1)	615 (50.0)	101 (8.2)	40 (3.2)	1231 (100.0)		

*** p<.001

<표 9>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

구분	매우 유익	유익	보통	영향 없음	계	χ^2 (df)	p
일반인	69 (18.8)	193 (52.6)	101 (27.5)	4 (1.1)	367 (29.8)	32.06*** (3)	0.000
학생	200 (23.1)	486 (56.3)	135 (15.6)	43 (5.0)	864 (70.2)		
계	269 (21.9)	679 (55.2)	236 (19.2)	47 (3.8)	1231 (100.0)		

*** p<.001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72.44, p<.001$). 따라서 일반인은 두개피관리를 미용실에 받기를 가장 원하는 반면에 학생은 두피관리센타에서 받길 가장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인과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9>과 같이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 19.2%, 영향 없음 3.8%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학생이 79.4%로 일반인 71.4%보다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2.06, p<.001$). 따라서 학생이 일반인보다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일반인과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개피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발의 상태는 자연모가 24%이고 그 외의 화학적 시술을 행한 모발이 76%이며, 일반인이 학생보다 자연모가 많았다. 두개피부의 상태는 정상 두개피부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건성, 지성, 중성, 민감성 두개피부 순으로 나타났고 정상 두개피부는 학생이 많고 일반인은 건성 두개피부가 학생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두개피 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47.1%이고 그 외 52.9%가 가려움과 비듬, 민감성, 탈모, 염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이 학생보다 가려움과 비듬이 많았다.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로 염색 및 탈색이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퍼머넌트 헤어 웨이브, 헤어블로우 드라이 스타일링, 헤어 코팅 및 매니큐어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인이 학생보다 염색 및 탈색이 모발손상의 주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개피 관리 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77.6%, 있는 경우는 22.4%이며, 집단별로는 일반인과 학생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이 두개피 관리를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았다.

두개피 관리 받기를 원하는 장소는 두피관리센타에서 받길 원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미

용실 30.5%, 병원 8.2%, 피부관리실 8.1%,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별로는 일반인은 미용실에서 받기를 원하는 반면 학생은 두피관리센타에서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통 19.2%, 영향 없음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일반인보다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개피 상태는 자연모나 정상 두개피부보다 화학적 시술을 했거나 정상 두개피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개피부 증상 또한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이상 증상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두개피 관리의 대부분이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두개피 관리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은 향후 두개피 관리의 중요성과 두개피 관리 시장의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치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두개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조사대상이 부산광역시라는 조사지역적인 한계와 표본 집단의 제약성으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향후에는 표본추출 확대를 통한 광범위한 연구와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은희철 외(2004). Hair biology. 서울대학교출판부. p.69.
- 2) 김광옥 외(2005). 두피. 모발관리를 위한 트리콜로지스트 입문서. 서울: 청람, p.15.
- 3) 강경하(2004). 여성들의 모발손상에 대한 의식행태와 관련 요인 조사. 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0.
- 4) 김종배 외(2005). 인체 모발 형태학. 이화출판사, p.77.
- 5) 김종배 외(2005). '위의 책'. p.88.
- 6) 한국모발학회(2006). 두개피 육모 관리학. 이화출판사, p.52.
- 7) 류은주(2003). 모발 및 두피관리 방법론. 이화출판사, p.109.
- 8) 오강수 외(2005). 인체 모발 생리학. 이화출판사, p.170.
- 9) Robbins. Clarence R (2002). Chemical and Physical Behavior of Human Hair. New York: Springer Verlag, p.25.
- 10) 문영란(2003). 직장인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p.39.